

6월 호국 보훈의달 특집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마을을 지킵니다.



이 시대의 아름다운 보국 保國

나라를 위하기 위해 거창한 구호나 행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잊혀져 가는 지역의 자원을 닦고, 이웃의 삶을 보듬으며
마을의 오늘을 묵묵히 지켜내는 땀방울,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따뜻한 보국일 것입니다.



6월, 충청의 땅이 기억하는 세 이름

호국보훈의 달 6월, 충청의 땅에는 세 가지 결의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충남 예산의 윤봉길 의사, 충북 괴산의 국립괴산호국원, 대전의 국립대전현충원—
독립호국현충이 이 땅의 뿌리입니다.
이번 호는 그 뿌리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충청의 마을기업 세 곳을 기록합니다.
기억을 남기는 사람들, 고장의 자원을 지키는 사람들,
사라져가는 것들을 이어받은 사람들—
그들이 마을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보훈의 땅에서 세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1. 대전, 국립대전현충원
2. 충남 예산, 윤봉길 의사 사적지
3. 충북 괴산, 국립괴산호국원

희망의 첫걸음

대전
한국시니어방송

무대 위에 다시 선 사람들

지난 4월 대전 서구관저문예회관 3층 공연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시니어 세대의 목소리를 담은 뉴미디어 플랫폼 한국시니어방송의 개국기념식이었습니다. ‘온에어, 시니어의 불빛이 시작됩니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과 콘서트에는 200여 명의 관객이 모여 시니어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최병옥 한국시니어방송 회장은 이날 개국을 기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마을기업으로서 시니어의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이라는 매개로 시작했지만 한국시니어방송은 그저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역량과 경험을 가진 시니어들이 저마다의 재능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서로 배우며, 새로운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 기반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 시니어들은 시민기자이자 크리에이터가 되고, 강사이자 문화예술 활동가가 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 되려면

한국시니어방송의 출발점에는 이희내 대표의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역방송 PD로 활동하며 수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그는, 오랜 시간 시니어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은퇴 이후 사회와 단절되는 중장년층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특히 직업을 떠난 뒤 급격히 위축되는 남성 시니어들의 모습은 깊은 문제의식으로 남았습니다. 일터를 떠나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많은 이들에게 은퇴는 사회적 역할과 존재감을 함께 잃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희내 대표는 “여전히 능력과 경험이 있는데도 설 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시니어방송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여가 프로그램이 아닌, 시니어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만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되고 강사가 되고, 다시 사회의 주인공으로

그 가능성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오랫동안 진행해 온 시민기자 교육에는 70대 어르신들도 참여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조차 낯설어하던 한 참가자는 꾸준히 교육을 받으며 시민기자로 성장했고, 결국 지역 방송사의 최우수 시민기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역 행사와 현장을 누비며 취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니어 조합원들은



온에어(On-Air), 두 번째 전성기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스튜디오와 SNS를 구심점으로 저마다의 재능과 경험에 빚대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실현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대표는 이 변화의 핵심이 ‘배움’보다 ‘역할’에 있다고 말합니다. 직접 발로 뛰는 기자가 되고, 강사가 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이 삶의 활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시니어방송에 참여한 시니어들은 방송국 이사, 시민기자, 예술단 활동가 등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새로운 소속감과 책임감을 얻고 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닌 아니라 “기자님”으로 불리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사회의 주인공이 됩니다.

시니어의 경험과 청년의 가능성이 만나는 플랫폼

한국시니어방송은 앞으로 시니어만을 위한 공간에만 머물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니어의 경험과 청년의 감각이 만나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 방송국 대표, 현직 교수진, PD, 작가, 아나운서, 가수, 배우 등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참여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르신들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활용법, SNS 운영, 유튜브 영상 업로드, 블로그 작성,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분야 콘텐츠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오랜 기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물 이어온 전직 아나운서의 재능을 살려 동화책과 생활 정보, 교양 콘텐츠 등을 오디오북 형태로 제작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시니어를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를 지탱해 온 경험과 전문성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시니어방송은 그 자산이 다시 사회 속에서 쓰일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시니어의 목소리가 지역을 움직이고, 그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세대 상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⁴⁾

1. 한국시니어방송은 시니어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교육·생활 분야의 폭넓은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니어 맞춤형 미디어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구성원들이 참여하며 한국시니어방송의 콘텐츠는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다.



영광의 두걸음

지역의 뿌리를 지켜 다시 청년의 힘으로

괴산
둔울울갱이영농협동조합법인

울갱이가 흐르는 강, 사람이 모이는 마을

충북 괴산군 칠성면 둔울마을은 군자산과 같은동구곡, 쌍곡계곡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달천강이 흐르며, 깨끗한 물에서만 자라는 울갱이(다슬기)가 풍부하게 서식해 오래전부터 ‘울갱이마을’로 불려왔습니다. 강변의 돌과 자갈 사이에서 자란 울갱이는 마을을 대표하는 특산물이자 주민들의 삶과 함께해 온 소중한 자원입니다. 둔울마을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농촌체험마을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여름이면 달천강에서 울갱이를 잡고, 돌무지를 뒤집어 민물고기를 찾는 생태체험이 열립니다. 주민들은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자이자 해설사, 농산물 생산자로 참여하며 마을을 함께 가꿔왔습니다. 2006년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 사업에 선정된 이후 둔울마을은 체험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한때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체험 프로그램이 차지할 정도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은 체험사업의 쇠퇴와 함께 마을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험을 넘어, 지역 자원에 가치를 더하다

박종영 대표가 눈을 돌린 것은 마을의 대표 자원인 울갱이와 농산물이었습니다. “1차 농산물만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 아래, 그는 가공사업에 도전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상징인 울갱이를 활용한 특화 상품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울갱이청국장’입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메주공과 울갱이를 결합한 이 제품은 박 대표가 직접 특허를 출원하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수년 동안 시제품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상품성을 검토한 끝에 완성된 제품입니다. 2018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가공공장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울갱이청국장을 시작으로 냉동옥수수와 절임배추 등으로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잡곡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해 가공·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결국 고객이 늘어나야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더 많이 팔 수 있다”며 마을기업이 지역 농업과 주민 소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농사짓고, 함께 키워가는 기업

둔울울갱이영농협동조합법인의 지향점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형 기업입니다. 처음부터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가공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사업 확대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험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현재 조합원들은 옥수수와 배추, 잡곡 등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아닌 조합원도 있지만 바쁜 농번기가 되면 반드시 서로 일손을 돕고, 가공과 포장 작업이 필요할 때도 힘을 보탬니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이를 다시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묵묵히 곁에서 함께하는 조합원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충청도민 특유의 투박하고 조용한 진심이 그를 지탱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생산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마을기업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마을의 다음 세대를 기다리며

박종영 대표가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마을의 미래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현실 속에서 체험사업과 가공사업을 이어갈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주민들과 함께 다져온 체험사업과 가공사업의 기반 위에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황금비율 잡곡세트 같은 신제품 개발도 그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젊은 귀촌인에게는 경험과 마을 자산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자립과 정착을 돕습니다. 무엇보다 박 대표는 마을기업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되고,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청년세대들이 들어와 이 마을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그의 다짐에는 한평생을 살아온 둔울마을에 대한 끝없는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❶



1. 박종영 대표는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과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마을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2. 괴산의 청정 자연이 길러낸 잡곡과 울갱이청국장을 비롯 한 건강 한 먹거리는 둔울울갱이영농조합법인의 가장 큰 경쟁력 이자 자산이다.



헌신의 세 걸음

디자인을 입힌 농업, 마을의 미래를 잇다

서산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



농민들이 주인이 된 협동조합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수고로움에 걸맞는 빛을 입혀주고 싶었지요.”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 한기웅 고문은 협동조합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에 자리한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은 농민과 귀촌인, 디자이너가 함께 만든 마을기업입니다. 로컬푸드센터와 농가레스토랑, 가공공장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과 체험, 외식, 교육을 결합한 6차산업 모델을 구축하며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출발은 농촌의 현실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습니다. 도시에서 디자인 회사의 대표이자 교수로 활동하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온 한기웅 고문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농민들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먼저 농산물의 가공과 체험, 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의 필요성을 주민들과 나누었고, 교육과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갔습니다. 공감대를 얻은 지역 리더들의 참여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힘을 모으면서 협동조합 설립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기웅 고문은 “협동조합은 특정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기업을 구상하게 된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왕손가의 전통을 빛다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의 대표 상품인 고라실 찹쌀떡과 우리콩 두부에는 여미리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미리는 왕의 후손들이 정착해 살아온 마을입니다. 이진식 조합장은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던 찹쌀떡과 두부를 지역의 대표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주민들과 시식회를 열고 조합원 품평회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며 제품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왕손가의 조리법은 살리되 현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고라실 찹쌀떡은 지역에서 생산한 찹쌀과 팥을 사용하며, 통팥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콩 두부 역시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콩을 활용해 만듭니다. 한기웅 고문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음식이라는 원칙을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지탱하는 힘은 품질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라실 찹쌀떡과 우리콩 두부는 온라인 판매와 홈쇼핑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과 만나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농촌의 가치를 디자인하다

한편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은 농업에 디자인과 브랜딩 개념을 접목해 성장해왔습니다. 한기웅 고문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큼 소비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와 가공, 마케팅 관련 교육을 꾸준히 진행했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써왔습니다. 변화는 주민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협동조합이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하면서 콩과 팥, 찹쌀 재배 농가가 늘어났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역시 대부분 지역 농가를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에는 250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부녀회가 가공사업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제품이 인기를 얻자 새롭게 두부에 쓰일 콩을 심는 인근 농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농장을 꿈꾸다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은 최근 돌봄농장으로 외연을 확장하며 농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과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과 돌봄이 결합된 케어팜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농업을 매개로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기웅 고문은 마을기업의 또 다른 과제로 청년 유입을 꼽았습니다. 현재 젊은 직원들이 가공사업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기회를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산만 하는 농업이 아니라 가공과 체험, 외식, 돌봄까지 연결된다면 농촌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땐 우리 청년들에게 당당히 우리 마을에서 새 삶을 도전해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에서 시작된 협동조합은 전통음식을 지역의 대표 상품으로 키우고, 주민들의 판로를 넓히며 새로운 농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❷



1.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은 다양한 세대와 경험이 어우러져 함께 성장하는 마을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조합원들은 먹을 빛을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며 협동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2. 디자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한기웅 고문과 조합 안팎을 세심하게 살피는 이진식 조합장의 리더십은 협동조합을 이끄는 든든한 구심점이다.
3. 국내산 통팥을 아낌없이 넣은 고라실 찹쌀떡은 쫄면의 식감과 담백한 단맛으로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마을기업 명예의 전당

예비(記) → 우수(守) → 모두애(繼),
기억하고 지키고 잇는 성장의 3단계를 소개합니다.

01 예비 기억(記)

희망의 첫걸음

한국시니어방송처럼 평생의 경험을 지역을 위해 쓰겠다는 뜻을 모은 것이 예비마을기업의 출발입니다.

5인 이상 주민 공동 출자

지역 자원 활용 사업계획서

사업비: 최대 1,000만 원

02 우수 지킴(守)

영광의 두 걸음

둔울울갱이영농협동조합법인처럼 묵묵한 기다림으로 자립을 완성하고 지역 순환경제를 지켜내는 단계입니다.

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지속성

3회차 사업비 지원·정산 완료

사업비: 최대 7,000만 원

03 모두애 이음(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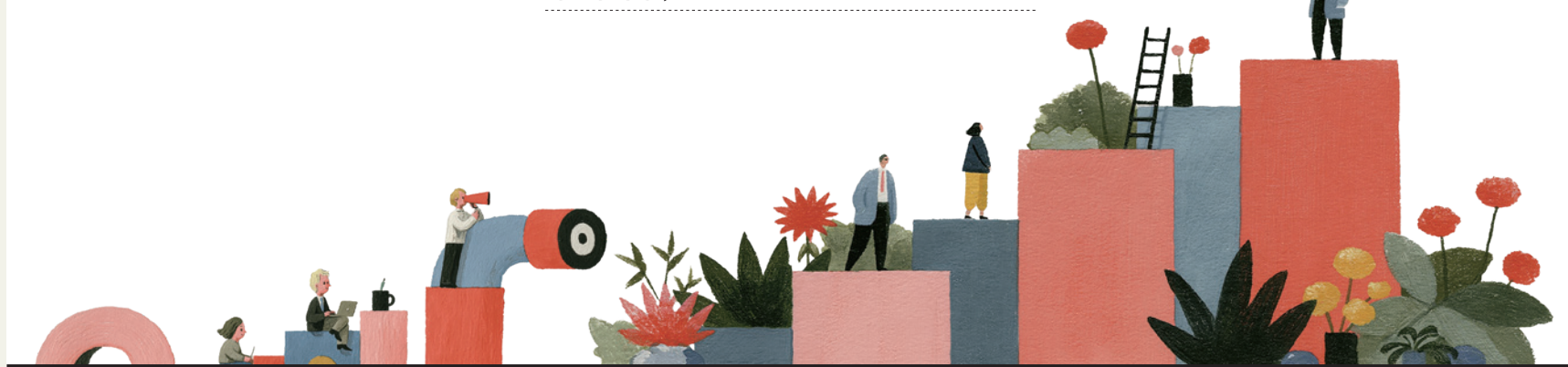
헌신의 세 걸음

운산달래하우스협동조합처럼 전통을 잇고, 이웃을 보듬고, 마을을 일상의 보국으로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3년 평균 매출 3억 원 이상

지역 영향력·확장성·스타성

사업비: 최대 1억 원



기억하고, 지키고, 잇다

호국의
마지막 걸음을
참여로
채워주세요

한국시니어방송의 카메라가 대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둔울울갱이영농협동조합법인이 울갱이와 곡식으로 괴산 청정 자연을 지키며,
운산달래하우스협동조합의 손두부와 고라실 찹쌀떡이
서산 지역 주민의 밥상을 건강하게 채웁니다.

예비에서 우수로, 우수에서 모두애로—
마을기업의 세 걸음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역에 대한 헌신을 이어가는 마을기업에
응원과 참여로 함께해주세요.



한국시니어방송
시청하고 댓글 남기기

인생 2막을 알리는 On-air!
한국시니어방송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둔울울갱이영농협동조합법인
청국장과 백미 구매하기

괴산의 청정 자연에서 나고 자란
건강하고 편안한 맛을
밥상에서 즐겨보세요.



운산달래하우스협동조합
손두부와
고라실 찹쌀떡 구매하기

우리 콩과 팥으로 정성스레 만들어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